

벤투호 최대 고비... '지옥의 2연전'

7일 카타르WC 최종예선 홈 3차전 시리아와 맞대결 12일 난공불락 아자디서는 손흥민·황희찬 발끝 주목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벤투호가 동아시아와 중동을 넘나드는 '지옥의 2연전'을 치른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7일 오후 8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시리아를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3차전을 치른다.

이어 한국시간으로 12일 오후 10시 30분에는 이란 테헤란의 '원정팀의 지옥'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중동 최강 이란과 4차전 맞대결을 펼친다.

홈에서 연전을 치렀던 1, 2차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홈에서 첫 경기를 치르고 중동으로 장거리 원정을 떠나 두 번째 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전력의 핵심인 해외파 선수들이 시차에 두 번이나 적응해야 하는 가혹한 일정이다. 게다가 상대도 만만치 않아 이번 2연전은 벤투호의 카타르행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첫 상대 시리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81위로 한국(36위)보다 40여 계단 낮다. A조 순위에서도 한국은 이란(승점 6)에 이어 2위(승점 4)에 자리해 있고, 시리아는 승리 없이 4위(승점 1)로 처져 있다.

하지만 한국은 시리아와 대결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인 적이 별로 없다. 한국은 상대 전적에서 4승 3무 1패로 우위에 있지만, 1978년 첫 대결(2-0 승리)을 제외하면 이길 때 늘 1점 차 진패 승부를 펼쳤다.

답답한 경기력으로 비판을 받는 벤투 감독으로서 시리아전에서 승점 3점 획득 이상의 '시원한 승리'를 거둘 필요가 있다.

다행히 벤투호를 패승으로 이끌어 아 할 해외파 공격수들이 소속팀에서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했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보르도),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소속팀에서 나란히 3골씩을 기록 중이다. 이들 모두 팀 내 최대 득점자다. 안방에서 시리아를 상대한 바로 다음 날, 벤투호는 '지옥의 이란 원정길'에 오른다.

한국은 이란과 역대 전적에서 9승 9무 13패로 밀린다.

게다가 아자디 스타디움은 한국에 난공불락의 요새다. 한국은 이곳에서 단 한 번도 이란을 이겨본 적이 없다.

한국은 이후 홈에서 열린 2차레 맞

대결에서 모두 비긴 것을 포함, 최근 6경기(2무 4패)째 이란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란에 마지막으로 승리한 것은 2011년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1-0 승)으로 벌써 10년 전 일이다. 이번에도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벤투호는 아즈문(6골 1도움), 알리 레자 자한바흐시(3골 2도움·페에노르트), 메흐디 타레미(5골 1도움·이상 소속팀 기록·포르투) 등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유럽과 공격수들을 잘 막아야 승산이 있을 전망이다.

극성스럽기로 악명높은 이란 축구 팬들의 응원 소리가 예전보다 작을 것이라는 점은 벤투호에 다행이다.

아자디 스타디움은 최대 10만여 명이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코로나19 때문에 홈 관중이 1만 명만 입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에서 활약한 여자골프 '어벤져스' 박인비·고진영·김효주·김세영(왼쪽부터). 연합뉴스

'어벤져스' 다시 한번 우승 도전

LPGA 투어 파운더스컵 고진영·박인비 등 총출동

여자골프 세계랭킹 2·3위 고진영(26)과 박인비(33)가 1타 차 준우승의 아쉬운 기역을 뒤로 하고 좋은 추적이 예상되는 대회에서 우승 사냥에 나선다.

고진영과 박인비는 8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 콜드웰의 마운틴 리지 컨트리클럽(파72·6656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그니트프라운더스컵(총상금 300만달러)에 출전한다.

파운더스컵은 고진영과 박인비에게 특별한 대회다.

고진영은 2019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이고, 박인비는 2018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 대회는 유독 한국 선수의 우승으로 끝난 적이 많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파운더스컵의 역대 우승자 10명 중 4명이 한국인이다.

고진영과 박인비를 앞서 2015년에는 김효주(26)가, 2016년에는 김세영(28)이 이 대회에 출전했다.

고진영, 박인비, 김효주, 김세영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여자골프 국가대표팀 '어벤져스' 멤버들이다.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은 LPGA 투어에서 4승을 합작했는데, 고진영이 2승, 박인비와 김효주가 1승씩 거뒀다.

파운더스컵을 포함해 4개 대회만 남겨둔 가운데 어벤져스가 추가 우승을 선사할지 주목된다.

유소연(31), 이정은(25), 허미정(32), 지은희(35), 이미향(28), 이미림(31), 신지은(29), 최은정(31), 전인지(27), 김아림(26), 강해지(31) 등도 출전한다.

연합뉴스

양현종 유턴... 어느 팀 향할까?

MLB 텍사스 마이너 계약 종료 국내 복귀 KIA와 우선 협상

큰 꿈을 안고 도전에 나섰던 양현종(33)이 5일 귀국한다.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도전한 양현종은 1년 만에 귀국해 원소속팀 KIA 타이거즈와 우선 협상 테이블을 차릴 예정이다.

양현종은 KIA와 계약할 가능성이 크지만, 타 구단과 사인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양현종은 텍사스 산하 마이너리그 라운드록과 계약이 완전히 종료돼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KBO리그 10개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양현종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대다수 원소속팀은 선수의 기량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역대 최고수준의 대우를 보장했다.

유턴과 선수들은 대부분 계약 규모에서 신기록을 작성했다.

2012년 일본에서 돌아온 김태균은 당시 KBO리그 최고 연봉 기록(15억원)을 세우며 원소속팀 한화 이글스에 복귀했고, 2017년 미국에서 돌아온 이대호도 롯데 자이언츠와 역대 최고액(4년 총액 150억원) 기록을 썼다.

원소속팀은 해당 선수의 한국 복귀를 해의 진출 실패가 아닌 금의환향으로 포장하기 위해 충분한 보상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선수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원소속팀이 아닌 타 구단과 계약한 특수한 경우도 있다.

2018년 김현수는 친정팀 두산 베어스가 아닌 경쟁 구단 LG 트윈스를 택했다. 당시 두산은 프랜차이즈 스타 김현수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룹 사정상 몸값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턴과 선수들의 복귀 성적은 나쁘지 않다. 타자의 경우 만 35세 이상의 나이로 돌아왔을 때는 대부분 예전의 기량을 펼치며 기대에 걸맞은 성적을 냈다.

투수들은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 성적을 냈다. 오승환은 전성기가 지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복귀 첫해 3승 2패 18세이브 평균자책점 2.64를 기록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양현종은 몸 상태가 좋고 미국 무대에서도 나름대로 위력적인 공을 던졌다. MLB 첫 3경기까지는 2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선발 로테이션에 들기 했다. 여전히 KBO리그에서 최고 성적을 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KIA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계약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합뉴스



'저리 비켜' 4일 캘리포니아 잉글우드 소피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리그 로스앤젤레스 차저스(이하 차저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이하 레이더스)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이날 차저스는 레이더스를 28-14로 격파했다. 연합뉴스

라스베이거스 2연전... 임성재 등 출격

PGA 칠드런스오픈·CJ컵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가 2주 연속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펼쳐진다.

먼저 7일부터 나흘간 라스베이거스의 서머린 TPC(파71·7255야드)에서 개막하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총상금 700만 달러)이 열린다. 14일부터는 역시 라스베이거스의 더 서밋 클럽에서 더 CJ컵(총상금 975만 달러)이 펼쳐진다.

더 CJ컵은 한국 기업 CJ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대회로 2017년부터 3년간 제주도에서 열렸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미국라스베이거스로 개최 장소를 옮겼다.

올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는 임성재(23)와 김시우(26), 강성훈(34), 이경훈(30), 노승열(30)이 출전하고 교포 선수 케빈 나, 더그 김, 제임스 한(이상 미국)도 나온다.

김시우는 2021-2022시즌 개막전으로 9월에 열린 포터넷 챔피언십 공동 11위, 두번째 대회로 4일 끝난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 8위 등 시즌 초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8위, 2018년 15위 등 상위권 성적을 냈던 김시우로서는 이번 대회와 후원사인 CJ가 개최하는 다음 주 더 CJ컵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좋은 기회다.

임성재 역시 지난해 이 대회 공동 13위로 선전했지만 이번 대회에 이번 대회를 앞두고 PGA 투어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파워 랭킹'에 임성재가 10위, 김시우 13위에 올라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꼽혔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20 이슈 픽셀과 함께 스페셜 11:50 더 나은 삶, 우리 함께 당신을 응원합니다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국가대표 와이프(재) 10:00 인강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달라와 김지탐(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가전 해피플러스 8:50 두 번째 남편(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 맛에 산다 11:15 꾸러기 식사교실(재) 11:45 주라킵스3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로시네 9:55 SBS 10 뉴스 10:30 특집 생방송 오늘 11:00 예나그려라 11:30 꾸러기 탐구생활	8:00 딩동댕 유치원 8:30 한글공룡사 아이야 9:40 우리집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3:00 일단해봐요 생방송 오후1시 15:25 클래식 e 16:00 마사와 꿈 16:30 동명동 유치원 17: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19:05 미스터 마구 19:35 자이언트 팽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KBS네트워킹특선 이스트 라이프 13: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열린채널 15:10 어린이 동물터비 15:40 팔도방송 스페셜 16:00 시사간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5 달라와 김지탐(재) 13: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카오카(재) 15:30 TV 유치원 16:00 UHD 환경스페셜 17:00 토요T 우주소우대 17:15 중앙중앙 풀꽃이 17:30 꽃집 영화가 좋다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검은태양(재) 13:4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보보보 좋아좋아 15:50 한글날 특집 우리말 바로 쓰기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테마여행 길 스페셜	12:00 SBS 12시 뉴스 12:15 JIBS 뉴스 12: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4:00 뉴스브리핑 16:00 팟쇼강산 GoGo 17:00 SBS 오피스 17:35 JIBS 뉴스 17:50 전국 TOP10 기요소(재)	7:00 김태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대창씨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 낮중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섬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환관승부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영진의 가스펠 어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20:30 국가대표 와이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스페셜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빨강 구두 20:30 박원숙의 같이 삼시디 3 21:30 달라와 김지탐 22:40 프리부드 23:50 스튜디오 K	18:05 글로벌 도내이션쇼 W 19:05 두 번째 남편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구해줘! 속소 22:30 라디오스타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22:40 백종원의 골목식당	8:00 할말래, 이라도사나 9:00 KCTV 뉴스 9:3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10:30 세계의 99방송 13:10 KCTV 디큐스페셜 14:00 할말래, 이라도사나 15:1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16:10 KCTV 디큐스페셜 18:00 할말래, 이라도사나 19:00 2021 탈라문화제 개막식 20:50 UHD 제주산책 21:00 KCTV 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6일

36년 즐거움 행복의 마음으로 자기최면을 걸자. 48년 분별력이 필요하니 생각을 신중하게. 경계망동은 비웃음 대상이 된다. 60년 시비, 구설이 오거나 소송권이 오니 매사 신중하는 게 좋다. 72년 화복이 풀리고 대인관계를 중시하면 신뢰를 얻는다. 84년 좋은 인연 만났거나 모임에 합류하면 좋다.

37년 하는 일에 변동이 오거나 정리하고 한다. 49년 한가지 특기나 취미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 61년 직장이나 자식문제도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73년 돈 문제로 다툼이 있으며 손재수가 있으니 자금관리 철저. 85년 열심히 노력한 댓가가 있다.

38년 병환의 회복이 더디다. 안전사고 유의. 50년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나 다툼이 오거나 금전거래 시 자제나 보류. 62년 휴직자는 일이 생기고, 활동인은 업무가 가중돼 피로가 누적. 74년 해결되지 않던 일이나 추방의 도움으로 일이 풀려 나간다. 86년 내의 지대로 일을 추진해가면 일이 풀린다.

39년 마음 먹은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게 좋다. 51년 결단을 내리고 때를 기다리면 소식이 온다. 63년 약속이나 갈 곳이 많다. 75년 사소한 언쟁이 사이를 갈라 놓으니 미혼자는 이태타산을 논하지 마라. 87년 협조가 있어 일이 성사되고 결과가 있다.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라.

40년 친구나 주위와 음식이나 운동을 함께 한다. 52년 물질적 문제, 정신적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직업으로 갈등한다. 64년 자녀 문제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한다.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 76년 신상이 예민하거나 시력저하 또는 두통이 오니 무리하지 말 것. 88년 일이 필요할 때 주변에 요청하면 가능하다.

41년 사소한 일에 참견 시 큰 다툼이 되니 나서거나 간섭하지 마라. 53년 날 앞에 너무 나서면 시기 미움을 사게 되며 때론 적이 되기도 한다. 65년 변화가 필요하면서도 막상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77년 약속이 생기고 모임이나 친목에 나간다. 89년 외출이나 타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 갈 일이 생긴다.

42년 작은 일이라도 작심하고 실천하면 그 결과가 좋다. 54년 확실할 수 없는 일은 매달리지 마라. 66년 가정 안에서 불화, 논쟁은 상처가 오래가니 대항하지 마라. 78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밀고 나가려는 집념이 필요하다. 90년 문서 관련 소식과 이익이 있다. 건강은 유의.

43년 전문적 업은 활기가 오니 직업 경력 필요. 55년 자녀 중 문제가 있거나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67년 열정이나 의욕이 강한 날. 활동성 있는 일은 이익이 증가된다. 79년 상사와의 마찰을 피하고 동료 간 관계 개선 유지할 것. 91년 시비 구설이 오니 나서는 일은 신중하게 행동하라.

44년 일의 성과는 만족을 못하나 구사일생의 기분으로 새 출발. 56년 밤낮없이 일한 성과가 있으니 피로함을 잊는다. 68년 가정에서는 화목해도 친척 또는 집안에 근심이 생긴다. 80년 직업을 갖기 위한 전문 분야에 도전해 미래 준비를 하라. 92년 흥겨운 웃소리가 은은하다.

45년 문서로 인한 일로 신경을 쓰게 되거나 자녀 일로 걱정이 생긴다. 57년 재물이 들어오고 일거리가 생기니 적극적 활동이 요구. 69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하고 일이 호전된다. 81년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자신을 한 번쯤 점검할 필요. 93년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46년 뜻하는 바를 이루니 참으로 기쁨이 있다. 58년 열정이 이익이 있기도 하지만 변화를 주려는 사람도 많다. 70년 자격 또는 면허를 갖고 하는 일은 기쁨이 배가 된다. 82년 직업인은 변동·변화를 추구하려 하며 마음에 동요가 생긴다. 94년 여기저기에 벌려놓은 일들이 내 맘에 안드니 잔소리가 커질 수 있다.

47년 활동력이 왕성하고 외부영업도 분주하다. 59년 한가지 직업에서 성공하니 전문직이 좋다. 71년 수입도 있으나 지출도 만만치 않다. 교육비 증가가 생긴다. 83년 돈 문제로 고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과가 미흡. 95년 아랫사람의 배려가 있지만 금전적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는다.